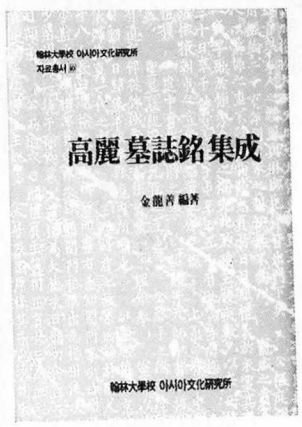
문헌 및 실물 망라한 역사학 기초자료

김용선 엮음 「高麗墓誌銘集成」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묘지명 모두를 모은 자료집. 편자 김용선 교수가 재직중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자료총서' 제10째 권으로 출간됐다.

묘지명이란 일반적으로 한 인물의 이름과 가계와 행적 등을 적어서 무덤에 함께 매장하는 금석문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록의 대부분은 매우 자세하면서도 생생하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한 훌륭한 전기적 자료이자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묘지명은 실물이나 탁본으로 된 것도 있지만 각 문집이나 족보 등에도 수록돼 산재해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지금껏 많은 시간을 필요한 묘지명을 찾는 데 허비해온 형편이었다. 편자는 머리말에서 "이러한 작업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사료에 보다 충실한 것을 본령으로 삼는 역사학 연구자들에게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의의를 찾는다.

「高麗墓誌銘集成」은 고려전기, 고려무인정권시대, 고려후기 상·하, 연대미상 등 다섯 부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묘지명은 연대작성순으로 306명의 인물들의 것이 수록됐다. 또한 모든 묘지명은 그 소재처 또는 전거를 적어놓아 연구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배려했는데, 바로 그 점은 편자가 이 책을 엮기 위해 경향각지 곳곳에 땀을 흘리고 왔음을 증거하는 표상이 되기도 한다.

수록된 묘지명에는 「고려사」의 '列傳'에 입전되거나 附傳된 인물이 96명이므로, 그외 210명의 개인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이 자료집은 관련학계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편자는 머리말에서 "이러한 고려묘지명의 존재는 수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대, 어떤 종류의 금석문보다 방대한 것으로서, 그 사료적 가치도 「고려사」 열전의 그것과 맞먹는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적는다.

이 책에 수록된 묘비명은 판독된 것을 가급적 원자료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적어 놓았다. 글자의 판독이 불가능한 것일 경우에는 다른 기록이나 편자의 판단에 의거해 네모 안에 넣고 있다. 특히 다른 글자로도 판독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괄호 안에 넣거나 물음표를 부기해 독자들은 편자의 '학문적 결벽'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 A5신 / 686면 / 45000원

영인본으로 완간된 연변조선족 문예지

대훈사 펴냄 「天池」 전49권

우리문학사상 최초로 재외교포들의 문예지를 영인본으로 묶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대전에 소재한 도서출판 大訓社(대표 김주팔)가 영인한 중국동포 문예지 월간 「天池」 총 49권의 완간이 그것이다.

중국 연변 길림성의 조선족 자치주 작가협회의 기관지인 「천지」는 지난 51년에 창간돼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정간과 분서를 당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중국내 한인작가들의 유일한 문학지 역할을 해온 잡지. 국내에서 이 잡지는 연변동포의 문화적 감수성과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우리말을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연변에서는 「천지」 이외에 「문학과 예술」 「아리랑」 「장백산」 「도라지」 「북두성」 「갈매기」 「송화강」 「진달래」 「세계문학」 등의 문학지가 나와 '연변문학'이라 할 만한 뚜렷한 성격의 문학세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천지」는 그 선두주자이며 60년대까지만해도 유일무이한 지면이었으므로 연변문학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한편 국문학계에서는 재외동포들의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도 국문학사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분분했지만 자료수집의 어려움때문에 그 실천이 유보돼온 저간의 사정을 상기시키며, 이 영인본의 출간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평가가 가능케 됐다고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영인본의 제1차분은 지난 91년 6월에 「천지」의 74년 1월호부터 90년 12월호까지를 한권의 목차집을 포함, 총18권으로 출간됐었다. 이어서 이번에 51년 6월 창간호부터 73년 12월호까지, 91년이후 작년말까지 나온 것이 총32권에 묶여 완간된 것. 총 3만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한·중 양국간의 여러 제도적 차이로 인해 벌어지게 된 영인작업과정의 신난함은 출판계의 재미있는 낙수거리이자 일화로 남을 만하다. 영인의 사전작업으로 원본을 복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으나 길림성내에 복사기가 한 대도 없었다는 것. 대훈사측이 복사기와 복사용지 등을 보냈지만 중국의 전압과는 맞이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을 방문하는 KBS 연변취재반에 영인을 의뢰했지만 일정상 무리가 생겨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등 크고 작은 '시련'을 거쳐 발간되었다고 김주팔씨는 전한다.

대훈사 / B5 / 총 30000면 / 2508000원

현장과 같은 〈편집회의〉 실습.

정기모임인 〈선배기자와의 만남〉.

잡지 · 신문 · 출판사 견학.

"편집을 가르쳐 주세요"

다섯 해 동안 꼼꼼히 준비를 했고, 취재 · 편집 전문교육기관으로 문을 연 지는 두 해가 되었습니다. 매번 열다섯 명의 예비 편집자를 후배로 생각하며 서로의 '앎'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 '반복되는 취재 실습, 글쓰기 훈련, 교열과 교정, 다양한 대지작업,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자랑으로 내 세웠으나 가끔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당한 한 가지, 그것은 역시 '좋은 사람들'입니다.
적은 인원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편집을 가르쳐 주세요."

대학로 동숭아트센타 맞은편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
서울 · 종로구 동숭동1-51 수산빌딩 3, 4층
TEL : (대) 747-1991~3 FAX : 747-1994

그림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장실무 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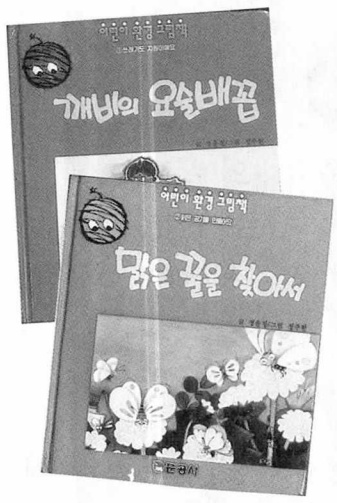
15명의 예비기자를 모집합니다

교육과정 : 취재편집 실무 4개월 과정
입학자격 : 대재 및 대졸(전공불문)
모집인원 : 15명 정원(선착순)
접수마감 :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 : (02)747-1991

• 취재 · 편집 인력이 필요하시면 즉시 FAX나 DM, 방문을 통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내최초의 어린이용 창작 환경도서

문공사 펴냄「어린이 환경그림책」전5권



환경문제는 당대의 문제이자 후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대의 어른들에게 있어서 환경문제는 먹고 사는 일에 비해 매우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아동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습관을 배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같은 역할을 할 아동용 환경서적이 국내에는 드문 형편이다.

지금껏 출간된 아동용 환경서적은「사랑해요 지구아저씨」(김영사),「차돌이는 환경박사」,「병든 지구를 살리자」(예림당),「우리들의 곤충판매주식회사」(대교출판),「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포항제철학원),「숲속의 재판」(YMCA) 등 몇 종에 불과한 것이다.

문공사에서 펴낸「어린이 환경그림책」(전 5권)은 국내 최초의 순수창작 환경그림책이다. 4~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은 여러 환경문제 중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를 통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눈을 뜨도록 돕는다. 그리고 글과 그림을 각각 쓰고 그린 정윤정, 정주현씨가 자매지간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그 자매가 4~6세를 대상으로 한 환경그림책을 펴낸 이유는 "그 나이의 아동은 생활습관이나 운동동작, 또는 대인행동 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역할의식이나 놀이를 전개할 수 있게 되며, 사물을 보고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 되는 때라는 설명이다. "바로 이때 그림책을 통해 환경교육을 시작하면 아동은 무의식 속에서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길러갈 수 있다"고 이 책의 출간배경을 전한다.

「어린이 환경그림책」시리즈는「깨비의 요술배꼽」「맑은 꿀을 찾아서」「헉헉 숨이 막혀요」「거품괴물은 무서워」「팽팽, 끙끙 할아버지」등 5권으로 묶여 있다. 각권은 각각 쓰레기, 공기, 비닐, 물, 나무 등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소재를 다룬다. 그 일상적 소재는 그러나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비일상적인 이야기로 꾸며진다. 예를들어「헉헉, 숨이 막혀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색색의 비닐봉지를 쓰고 재밌게 논다. 함께 뛰놀던 멍멍이에게도 비닐을 씌운다. 모두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숨찬 멍멍이가 땅에서 불거져나온 이상한 것을 물어 당긴다. 아이들도 함께 당기자 비닐봉지가 줄줄이 이어나온다. 그때 지구아저씨가 말한다. "더이상 숨을 쉴 수 없구나. 이 비닐 좀 치워주겠니?"

문공사 / B6신 / 각 24면 / 각 2500원

가족의 사랑 주제로 한 프랑스 그림책

동아출판사 펴냄「토끼가족 이야기」전7권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하여, 산토끼들이 갖가지 모험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꾸민 그림동화책. 4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시리즈(전7권)는 그림책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의 밀랑(MILAN)출판사와 판권계약을 맺어 동아출판사에서 펴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꽤 진부한 말이 돼버렸지만 우수한 그림책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유아물 도서에 참신한 자극을 던질 것으로 보일 만큼 좋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있다. 세밀하고 화려하게 묘사된 그림(원화 : 로이크 주아니고)들은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원작 : 주느비에브 위리에)와 더불어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때로는 잔잔한 미소와 흐뭇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7마리 산토끼를 권마다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부모와 자식, 형제, 이웃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사랑을 일깨워준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기 산토끼 오형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스스로 모험을 헤쳐나가기도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실패도 겪는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결국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해결된다.

첫째권「통통이의 첫무대」는 토끼들의 축제에서 처음으로 춤을 추게 된 통통이가 심술궂은 까치에게 속아서 엉뚱하게도 개구리춤과 비둘기춤을 배우지만, 많은 토끼들 앞에서 용감하게 춤을 춤으로써 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줄거리를 지닌다.「아름이의 채소밭」은 드디어 자기 밭을 갖게 된 막내토끼 아름이가 열심히 채소를 가꾸지만 먹보 거북이가 밭을 망쳐놓아 실의에 빠지는데 가족의 따뜻한 위로로 힘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심술이는 용감한 탐험가」에서는 사막을 탐험하려면 바오밥나무를 찾아가야 한다는 왜가리의 말을 듣고 심술이가 길을 떠났는데…….

「춤추는 재롱이」는 추운 겨울에 맛있는 양배추잎을 얻기 위해 용감히 나선 재롱이의 모험담이 펼쳐진다.「여우를 만난 뱅글이」는 동생과 함께 놀러나간 뱅글이는 여우의 꾐에 빠져 동생이 여우들에게 붙잡히지만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줄거리를 지닌다.「무서운 그림자귀신」에 의하면, 산토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림자 귀신이다. 마지막권「산토끼 가족의 이사」에서는 정든 친구와 사물을 떠나게 되는 통통이의 안타까움이 애잔하게 묘사된다.

동아출판사 / A4변형 / 각 32면 / 각 3500원

관인중앙 신문 잡지 편집학원

안정적 취업추천

취업대비 정규과정 모집

■ 과정 : 편집·취재 과정(3개월), 전산편집 개설
■ 자격 : 전문대이상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전공불문)
　　– 편집부문은 고졸자도 가능
■ 인원 : 오전, 저녁반(20명 정원제)

위치 : 성균관대 입구(4호선 혜화역)

편집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잡지/출판/사보/광고

깊은 고민, 큰 결정

중앙편집학원에 문의 하십시오.

문의) 747-6521~3
FAX) 747-6524

편집·취재요원이 필요하십니까?

■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본원 수료생을 추천해 드립니다.
■ 취업희망자 명단을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